

광주시청 혼성 4×400m 계주 우승...한정미 '2관왕'

KBS배 전국육상대회 선전 400m 이어 두번째 금메달

광주시청 한정미가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한정미는 지난 4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혼성 4×400mR에서 이준, 장지용, 유지연과 호흡을 맞춰 광주시청의 1위에 힘을 보탤다. 광주시청은 3분30초73으로 진천군청(3분31초00), 화성시청(3분47초72)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라인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00m에 이어 혼성 릴레이 금메달로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정미는 전남 여자일반부 400m에 출전, 58초06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결승에서는 56초34로 가장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위는 56초62의 오세라(김포시청), 3위는 57초52의 김지은(전북개발공사)이 차지했다. 한정미는 주종목인 400m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1인자다운 모습을 과시했다. 지난 4월 시즌 첫 대회였던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400m를 뛰지 않고 릴레이에만 나서 2관왕에 올랐었다. 당시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100m 계주에서 강다슬, 정혜림, 유지연과 호흡을 맞춰 1위를 했고, 일반부 4×400m



광주시청이 지난 4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혼성 4×400mR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왼쪽부터 이준, 유지연, 한정미, 장지용.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혼성계주에서도 장지용, 이준, 유지연과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땀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한정미가 지난번 대회는 몸이 완전하지 않아 계주만 뛰었는데 이번에는 주종목인 400m에 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주종목인 400m에서 금메달로 시동을 건 만큼 올 시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자 100m 허희 간판인 광주시청 정혜림은 대회 마지막날인 7일 기록 도전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중 이은빈 200m 우승 '2관왕'

이은빈(15·전남체육중)이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은빈은 지난 3일 열린 이 대회 여중부 100m 결선에서 12초34를 기록, 우승과 함께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은빈은 "결선에서 스타트가 늦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며 우승해서 기쁘다"며 "100m 11초대 진입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은빈은 여자 중등부 200m 결선에서도 25초55로 우승했다. 육상 여자 단거리 유망주 기영난(12·경북 부산초교)이 한국 초등학교 200m 신기록을 세웠다. 기영난은 4일 열린 이 대회 여자 초등부 200m 결선에서 25초9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초등학생 때 200m를 25초대에 주파한 건, 기영난이 처음이다. 기영난은 지난해 배운진이 세운 한국 여자 초등부 기록 26초10을 0.18초 앞당긴 '부별 신기록'을 작성했다. 전날 100m에서 12초70으로 우승한 기영난은



지난 3일 KBS배 전국육상경기 100m 결선 여중부 경기에서 전남체육중 이은빈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 2관왕도 달성했다. 박시훈(14·구미민덕중)은 남자 중등부 포환던지기에서 19m09를 던져 정상에 올랐다. 여자 초등부 80m 결선에서는 이은서(10·진해동부초교)가 11초47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기술+빌드업...클래스를 보여줬다”

한국, 튀르키예니스탄 5-0 대파 FIFA “흠잡을 데 없는 경기 완성”

한국 축구대표팀의 튀르키예니스탄 대승을 이끈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등의 활약을 소속팀은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 현지 언론도 주목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튀르키예니스탄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4차전에서 선제 결승 골 포함 두 골을 넣은 황의조를 비롯해 남태희(알사드), 김영권(감바 오사카), 권창훈(수원 삼성)이 골 간지를 벌여 5-0으로 대승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승점 10·골 득실 +15)를 기록, 레바논(승점 10·골 득실 +5)에 골 득실에서 크게 앞서며 조 1위를 유지했다. 이날 풀타임을 뚫은 주장 손흥민은 비록 득점포는 직접 가동하지 못했지만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유감없이 뽐내며 후반전 세 골에 모두 관여하고 팀 승리에 중추적인 구실을 했다. 4-0으로 앞선 후반 27분에 손흥민이 중원에서 감각적인 볼 컨트롤로 상대 수비를 벗겨낸 뒤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던 권창훈에게 패스했고, 권창훈의 크로스를 황의조가 깔끔한 마무리로 썩기 골을 합작한 장면은 압권이었다. FIFA는 경기 후 홈페이지에 한국이 튀르키예니스탄과 역대 맞대결에서 최다 골 차 승리를 거뒀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FIFA는 손흥민을 '슈퍼스타',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적'이라 칭하면서 "손흥민이 이끈 한국 대표팀을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황의조는 이날 두 골을 넣었다"면서 "그의 두 번째 골이자 한국의 마지막 골은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손흥민이 능한 기술과 빌드업 플레이가 재빠른 마무리와 함께 태극전사들의 흠 잡을 데 없는 퍼포먼스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튀르키예니스탄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왼쪽)이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도 구단 홈페이지에 소속팀 선수들의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참가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을 맨 앞자리에 뒀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한국의 5-0 승리를 이끌었다"면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고 한국은 전반에 2골, 후반에 3골을 몰아넣으며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알렸다. 토트넘 팬 사이트인 스포스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다섯 번째 득점 영상을 올리

고는 "손흥민과 한국이 만든 이 골은 클래스가 굉장하다"고 적었다. 프랑스 신문 레퓌르는 "보르도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두 골을 넣어 한국이 튀르키예니스탄을 꺾고 조 선두를 유지했다"며 "헤딩으로 첫 골을 넣었고, 권창훈의 낮은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 그의 두 번째 골을 뽑았다"고 황의조의 득점 장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연합뉴스

용병 발로텔리 '해트트릭' 전남드래곤즈 1위 탈환

K리그2 서울이랜드에 3-0 완승

전남드래곤즈가 발로텔리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1위 탈환에 성공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15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발로텔리가 전반 3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10분과 40분에도 골을 터트리며 '해트트릭'과 함께 승리의 주역이 됐다. 지난 12라운드 안산전 이후 3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한 전남은 대전하나시티즌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앞선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골씩 주고받으며 1점씩 나눠 가졌지만 이번에는 전남이 초반부터 기세를 올렸다. 황기욱의 롭스스와 함께 전개된 공격.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이 발로텔리 앞으로 향했다. 발로텔리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안팎했다. 전남이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공세에 나선 서울이랜드를 잘 봉쇄하며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

했다. 그리고 후반 10분 다시 한번 발로텔리가 포효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의 패스미스가 나왔고, 김현욱이 공을 잡아 전방으로 패스를 했다. 발로텔리가 그대로 공을 몰고 달려간 뒤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0분 발로텔리가 승리를 확정하는 썩기골을 터트렸다. 이종호가 중원에서 가슴패싱으로 살린 공을 발로텔리에게 넘겨줬다. 발로텔리가 힐패스로 장성재에게 공을 보낸 뒤 상대 진영으로 질주했다. 그리고 장성재에게 다시 공을 넘겨받은 발로텔리가 골대를 가르면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3골을 터트리며 단숨에 7호골을 만든 발로텔리는 9골을 기록한 부산 안병준에 이어 득점 2위로 올라섰다. 발로텔리의 3골로 3점을 더한 전남은 7승 5무 3패(승점 26)로 1위로 다시 올라섰다. 한편 대전(7승 3무 5패·승점 24)은 안방에서 치른 FC안양(7승 4무 4패·승점 25)과의 경기에서 1-2로 지면서, 안양에 밀려 3위로 내려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유망주 신우빈 우즈베크 주니어대회 우승

테니스 유망주 신우빈(17·경기도테니스협회)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우즈베키스탄 주니어대회 NBU컵 단식 정상에 올랐다. 주니어 세계 랭킹 108위 신우빈은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선에서 톱 시드를 받은 에릭 아루타우니안(주니어 98위·벨라루스)을 2-1(6-2 3-6 6-3)로 제압했다.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니어 4그룹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신우빈은 이번에는 그보다 한 등

급 높은 3그룹 국제 대회를 제패했다. 주니어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게 된 신우빈은 다음 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그룹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월드컵 주니어 대회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신우빈은 2022년에 주니어 랭킹에서 2003년생들이 빠지면 주니어 30위권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4대 메이저 대회 주니어 부문에 자격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2관	크루엘라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4관	크루엘라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9관	크루엘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라이더스 오브 자스티스, 2067, 랑: 더 라스트 첩터
7관	씨네커플,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프로페서 앤 매드맨
8관	씨네커플, 파이프라인, 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칸터빌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